

도시개발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익산시, 만경강 수변도시 · 새만금 배후도시로 자리매김 기대

익산시가 만경강 수변도시, 신규 산업단지 등 대규모 도시개발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특히 시는 자연친화적인 매력적 주거환경으로 새만금배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변도시 조성과 기업들의 산업입지 신규수요에 대응해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속도를 낸다는 복안이다.



익산시가 만경강 수변도시, 신규 산업단지 등 대규모 도시개발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0년 만에 대규모 도시개발로 전라북도와의 관문이며 최적의 교통망과 지리적 강점으로 전주, 김제, 군산 새만금 배후도시 연결축을 담당해 친환경적 주거여건을 갖춘 새만금 배후도시 역할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만경강 수변도시의 기본구상을 토대로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지방 재정 등을 고려하여 민간 공모를 통한 민 · 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개발 사업자 선정 및 SRC(복수목적법인) 구성을 완료하여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익산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제3일반산업단지를 확정해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제3일반산업단은 연면적 100만㎡로 개성, KTX · SRT가 정착하는 익산역 등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시는 기업 유치의 공백 해소와 산업입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현재 산업단지 인공 272.815㎡(약 8만평) 규모로 확장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개발계획(변경) 전복도 승인을 목표로 관련 부서 및 전북지방환경청 등과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개발계획 승인 전 초기에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및 지장물 소유주와 협의의 보상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바이오산업시대를 주도할 신규 혁신산업단지를 조성해 국내 최대 바이오 메카 선점에도 나선다.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전초기지가 될 제5혁신 산업단지는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3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5인단은 바이오식품과 농생명 분야를 특화하고 화학 · 에너지, 의약 장비 등의 산업으로 확장시켜 차별화된 혁신 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

현재 기본구상 용역 추진 중으로 2월 말에 입주 대상 기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단지 위치, 규모, 추진방식 등을 확정하여 올해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명천 건설국장은 "익산의 산업지형을 바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신규 기업유치와 함께 인접 도시의 중심 생활권으로 발돋움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거점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대한민국 청년정책 트렌드 선도

익산 청년시청, 전국 42개 청년센터 · 재단 대표자 회의 개최

익산시가 전국 1호 청년시청을 연계한 정책 활성화로 대한민국 청년 정책 트렌드를 선도한다.

특히 익산청년시청은 전국 청년센터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취업, 주거, 문화 등 청년들의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익산 청년시청에서 22일 전국 42개 청년센터를 대상으로 2023년 전국청년센터협의회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청년시청 1층 청수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는 청년재단 포함 전국 총 23개 기관, 5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다. 또 실무자 직무역량 강화교육과 올해 청년센터 운영 협력사업 발전 방향 논의와 상호협력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도출했다.

특히 대표자들은 전국 최초로 개최된 청년시청의 시설을 둘러보고, 익산시 청년정책 설명을 들으면서 청년소통창구 · 정책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는 청년시청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회의에 참석한 한 기관 대표자는 "회의에 참석한 한 기관 대표자는 '전국 최초 청년시청의 시설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다. 선구적이고 탄탄한 청년정책을 펼치는 익산 청년시청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내실 있는 청년정책 마련을 위한 소통의 장이었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민 · 관 합동 점검 실시

군산시는 지난 21일 신학기를 대비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행동의 일환으로 신 · 변종 '틀카페' 영업시설에 대한 민 · 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수송동 롯데마트 주변과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위치한 청소년유해환경을 파악해 군산경찰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원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단속에 나섰다.

최근 일부 틀카페가 청소년 탈선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른 대응조치로

신학기를 대비해 신 · 변종 틀카페의 운영 실태를 사전에 점검해 청소년들의 탈선 및 비행 예방하기 위해 시행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행위 등 전방적인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청소년보호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포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023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시작

전기자동차 719대(승용 367대 · 화물 340대 · 승합 2대) 지원

군산시는 22일 미세먼지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126억원으로 전기자동차 민간부문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사업은 전기자동차 719대(승용 367대, 화물 350대, 승합 2대)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 지원할 계획이며, 보조금은 차종별 차등지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1,380만원, 화물차는 최대 1,900만원, 승합차는 최대 1만4,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전기자동차 상반기 민간보급사업은 22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으며, 전

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자동차 제작 · 수입사에서 '무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한 경우 보조금은 예산 범위내에서 차량 출고 · 등록순으로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연속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gunsan.go.kr/) 공고와 참고하거나 시청 환경정책과(☎063-454-4462)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법인이 2대이상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한국환경

공단 보급사업으로 접수해야함에 따라 개인이 보조금지원 받을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는 작년 사업비 172억원으로 전기자동차 1,004대를 보급했으며, 올해 사업물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가 자동차 소음과 매연이 없어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등에 따른 과태료부과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군산시의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지방재정 신속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익산시가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장인 전대식 부시장은 교통 · 고령화로 인한 지역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각 부서장들에게 신속한 재정집행을 추진토록 독려했다.

시는 신속집행 대상액 9,055억원 중

상반기 목표 60.5%(인 5,478억원)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속집행 대상액 100억원 이상인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매일 신속집행 보고회를 통해 중점관리하면서 집행률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전 부시장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농어촌지원센터 농촌마을 육성 리더 교육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2023년 첫 주민역량교육으로 지역인적자원육성 마을리더 교육을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총 3일간 진행했다고 밝혔다.

마을리더 육성과정은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리더 양성 교육으로 주민 주도적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소양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이며 마을 리더 및 활동가를 희망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첫날 마을인들기 사업의 이해와 행정 · 주민 · 중간지원조직 간 네트워크 이해, 리더의 역할과 자세 및 주민과의 의사소통 강의를 시작으로 마을발전 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보조금 예산 및 집행 관련 회계 프로세스의 교육을 진행했다.

/군산=이재춘기자



군산시간여행축제, 청년서포터즈 발대식 가져

군산시는 지난 21일 시간여행축제의 기획, 홍보 등을 전담할 청년 15명을 선발, 축제 청년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활동 계획, 기념촬영 및 탈립 오리엔테이션 활동으로 진행됐다.

청년 서포터즈는 시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1월 초 모집공고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15명이 선정됐다.

앞으로 서포터즈는 오는 10월까지 약 9개월간 △시간여행축제 기획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공유, △축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축제 홍보, △축제 기간 내 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방문객 안내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군산=이재춘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